

패션몰에서 스마트폰을... 중저가폰, 유통채널 넓힌다

삼성전자 '갤럭시 M20'

패션몰 무신사에서 판매 시작
15일부터는 오픈마켓서 유통

LG전자 'W 시리즈'

아마존 인디아 통해 해외 판매
W10·30, 판매 12분만에 매진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M20'에 대한 판매를 8일부터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에서 시작했다. /무신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에서 선출시하거나 온라인 전용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온라인 채널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하는 동시에 유통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M20'에 대한 판매를 이날부터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에서 시작했다. 업계는 패션몰에서 스마트폰

을 판매하는 모습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갤럭시 M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올해 초 중저가폰 라인업에서 새롭게 선보인 라인업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제품이다. 2월 인도에서 먼저 출시됐다.

이번에 국내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M20는 온라인 전용 자급제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22만원이다. 색상은 차콜 블랙 한가지다. 가성비를 높인 제품답게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임에도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전면에서 800만 화소 카메라, 후면에 1300만 화소 카메라와 5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인 비바스튜디오, 키르시, 크리틱, 마크곤잘레스 등 패션 브랜드와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 M20 전용 스포셜 패키지도 판매한다. 티셔츠, 휴대폰 케이스, 무신사 쿠폰북 등으로 구성된다.

공식 출시일인 15일부터는 삼성닷컴,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진행하지 않는다.

LG전자는 국내에선 아직 온라인 전용 스마트폰을 내놓은 적이 없지만 해외에선 시장 특성에 맞춰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3일 온라인 채널 아마존 인디아를 통해 인도에서 W 시리즈 판매를 시작했다. W10, W30, W30 프로 등 3종으로 W10은 15만원, W30은 16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됐다.

LG전자 인도법인에 따르면 W10과 W30은 판매를 시작한 지 12분 만에 매진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저렴한 W10은 6.19인치 디스플레이와 3GB 램, 32GB 저장용량과 후면 듀얼(1300만·500만 화소)과 전면 싱글(800만) 카메라 등 우수한 스펙을 장착했다. 배터리도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LG전자는 올해 인도 시장에서 W시리즈를 100만대 판매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만 판매할 경우 유통 관련 비용과 물류와 재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문을 받아 한 곳에서 판매하면 되기 때문에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할 경우 필요한 마케팅용 샘플을 제작할 필요도 없다"며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세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LG전자는 인공지능 드론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LG전자

전국 초·중·고·대학생 '드론 경진대회'

LG전자, 10일부터 참가신청 접수
8월31일~9월1일, 장충체육관서

LG전자가 10일부터 인공지능(AI) 드론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경진대회는 코딩 작업으로 드론용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

대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LG 울트라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참가자들은 7월부터 고려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동명대 등에서 사전 교육을 받는다. 코딩 장비로는 인텔의 미니 PC NUC(누크)가 지급된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생이다. 분야별로 예선을 거쳐 최종 70여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인텔의 미니 PC NUC(누크)를 코딩 장비로 활용한다. /김재용 기자

폭염 시작... '에어컨 대란' 만반의 준비

업계, 설치·AS 지연사태 최소화
삼성·LG 등 서비스 관련팀 정비

에어컨 대란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7월 초 갑자기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어나 설치 지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기다. 업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설치와 AS 지연 사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7월 초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6월 판매량이 30% 가까이 줄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예상보다 날씨가 덥지 않아 구매자가 감소했지만, 7월 들어 장마 대신 더위가 몰아치면서 폭염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설치와 AS 지연 사태는 불거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일찌감치 관련 팀을 재정비하고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설치팀 규

모를 최대 확대했다. 예년보다 한달 빠른 조치로, 늘어난 에어컨 수요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수리가 가능 인력도 확대했다. 외근 수리기사에 에어컨 수리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콜센터도 11개 대학 산학협정을 통해 여름 방학 기간 지원 인력을 총원했다.

수요 분산 조치도 시행했다. 자가점검과 청소유도하고, 문제가 있을시 무상점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다른 출장 서비스를 신청하면 에어컨을 추가로 점검해주는 '에어컨 플러스 서비스'도 마련했다.

LG전자는 올해 서비스 부문 대대적인 혁신을 마무리했다. 구광모 대표가 고객 가치 창출을 기조로 내건 후, 조직 자체를 탈바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정규직화다. LG전자는 지난 5월 서비스 엔지니어 모두를 자회사 아닌 본사로 직접고용했다. 신규

차량 2000여대를 공급하고 안전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교체했다.

성수기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현장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했다. 오는 8월까지 서비스 엔지니어를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게 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설치와 서비스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위니아딤채도 올 들어 서비스 인력을 확대하면서 대란을 준비해왔다. 서비스 계열사도 대우전자서비스와 대우위니아서비스를 위니아SLS로 통합해 효율을 극대화했다. 직장인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올해부터 퇴근 시간 이후에 설치를 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가전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AS는 가전 제조사에서 맡고 있지만, 설치와 유통사에서 자체 인력을 구성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최근 설치팀 인력을 20% 가량 확대하고 대란을 준비한 상태다. /김재용 기자 juk@

KT "소프트웨어 개발자 다 모여라"

내달 27일 'KSDC2019' 개최
온오프믹스 서 무료 사전등록

KT는 내달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2019(KSDC2019)'를 개최하고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KT가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2019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개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다. KT의 5G, AI, 커넥티드카, GIS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직접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KSDC 2019는 행사 당일 총 네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인 트

랙 1은 5G 기술을 주제로 '초초초(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5G IoT 플랫폼 개발기' 등 5G 소프트웨어 기술 사례를 발표한다. 트랙 2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통한 IT 혁신 사례 등 KT 사내 개발자의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트랙 3은 기가지니를 이용한 인공지능(AI)으로 'AI 메이커스 키트와 블록코딩' 등 기가지니에 적용된 핵심 기술과 개발 사례를 발표한다. 트랙 4는 전시 부스 공간이다. 5G 스마트팩토리, e스포츠 라이브 등 KT 솔루션을 전시하고 취업준비생이 직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부스도 운영한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KT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2019는 온오프믹스에서 무료 사전등록을 시작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이노 '친환경 사회적기업 창업 공모전' 반응 뜨거워

12일 마감... 총 5개 팀 선발

SK이노베이션이 환경부와 손잡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요건 ▲ SK이노베이션의 지원 범위 ▲ 공모전의 취지 등을 상세하게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모전은 통상적으로 마감일에 가까울수록 문의 및 접수건이 늘어난다. 앞으로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공모전의 인



기 원인으로 일반인들이 '착하게 돈 버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이 늘었고, SK이노베이션이 기업 창업에서부터 성장까지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

을 기획했다. 이달 12일까지 접수된 아이디어를 평가해 총 5개 팀을 선발한다. 이를테면 폐플라스틱과 폐윤활유를 재활용하는 방법,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등이 대상이다. 선발된 업체들에는 상금으로 각각 1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일회성 상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선발한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선발한 5개 팀을 대상으로 ▲ 사업 모델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 사회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해 3개 팀을 최종 선정한다.

/양성운 기자 ysw@